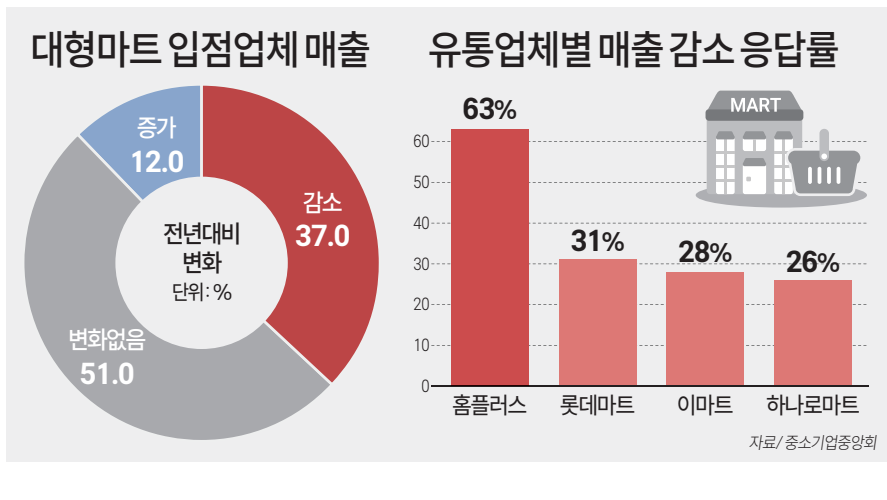
대형마트 입점업체 매출 감소 '뚜렷'… 홈플러스 피해 집중

중기중앙회, 中企 거래 실태조사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악영향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응답도



'홈플러스 사태'가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마트 입점업체 10곳 중 4곳은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로부터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입점사 대부분은 홈플러스와의 납품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가장 컸다.

특히 홈플러스로부터 피해를 당한 비율은 다른 대형마트에 비해 6~7배나 높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90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는 백화점의 경우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그리고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입점업체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곳은 37%로, 백화점 거래 감소 업체 비율(21%)보다 높았다.

특히 대형마트 입점 의류 업체들은 53.1%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해 화장품·미용품(44.3%), 가구(40%), 도서·문화·악기(36.4%) 등보다 높았다.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가 가장 많았던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63%로 단연 높았다. 이는 롯데마트(31%), 이마트(28%), 하나로마트(26%)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대형마트로부터 불공정거래 등을 경험했다고 답한 기업은 20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90%가 홈플러스와 납품대금 정산 지연 문제였다. 반면 지난해 기준으로 백화점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등을 경험했다고 답한 거래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22%는 대형마트의 매장 축소 또는 점포 폐쇄 등 운영 전략 변화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2%는 홈플러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대금 정산 지연'이 97.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형마트의 입점 여건은 85.8%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지만 11.8%는 '입점 여건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점 형태는 백화점은 특약매입(75%), 대형마트는 직매입(91%)이 주를 이뤘다.

'특약매입'이란 백화점 등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후 상품판매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직매입'은 대형마트 등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다.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26.1%, 대형마트가 20.2%로 나타났다.

특약매입·임대을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의 경우 최고는 ▲현대(38%) ▲AK·갤러리아(36%) ▲신세계(35%) ▲롯데(33.0%), 최저는 ▲롯데·신세계·현대(10%) ▲AK·갤러리아(15%) 순이었다.

대형마트 수수료율은 최고가 ▲롯데마트(26%) ▲홈플러스(25%) ▲이마트·하나로마트(20%), 최저는 ▲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10%) ▲롯데마트(18%)였다.

직매입 평균 마진율은 백화점이 20.6%, 대형마트가 21%로 각각 조사된 가운데 최고 마진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롯데마트(46.7%)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40%), 백화점은 ▲롯데(33.3%) ▲AK·갤러리아·현대(30.0%) ▲신세계(26.0%) 순으로 높았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내수 부진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은 여전한 만큼 입점 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수수료와 납품대금 지급기한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유통업계와 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쿠팡Inc, 14조 매출에도 적자… 김범석 "내년 수익성 회복"

〈쿠팡Inc 의장〉

올해 적자 지속… 영업손실 1.8조 이상
비식품 즉시배송·대만 물류사업 확대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올해 3분기까지 1조8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상쇄했다. 3분기 매출은 14조원을 돌파했지만,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손실과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4일(한국시간)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3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99억6200만달러(14조2209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달러 기준 7%, 원화 환산 기준 11% 증가했다.

반면 영업손실은 4억5000만달러(642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6200만달러(2245억원)의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 올해 1분기 3545억원, 2분기 8350억원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다. 3분기 영업손실은 2021년 미국 증시 상장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실적에는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 관련 비용 2억4800만달러(약 3540억원)가 반영됐다. 전체 영업손실의 약 55%에 해당한다. 화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영업손실은 2억200만달러(약 2884억원)에 달했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부담도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3분기 매출원가율은 전년 동기 70.6%에서 74.3%로 높아졌고, 판매관리비는 17.7% 증가했다. 매출총이익률은 3.64%포인트 하락한 25.7%를 기록했다. 전사 조정 에비타(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는 1억1600만달러(약 1656억원)로 72% 감소했다.

주력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도 매출 성장과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등을 포함한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은 83억7400만달러(11조954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원화 기준 8% 증가했다. 그러나 조정 에비타는 3억8500만달러(5495억원)로 45% 감소했고, 이익률도 8.8%에서 4.6%로 낮아졌다.

활성고객은 2520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했다. 고객 1인당 매출은 47만3930원으로 6% 늘었다. 대만 로켓배송·파페치·쿠팡이츠 등을 포함한 성장사업 매출은 15억8800만달러(2조2669억원)로 고정환율 기준 27%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조8318억원으로 최근 3년간 거둔 영업이익 합계 1조8987억원의 96.5%에 달했다. 쿠팡Inc는 2023년 6174억원, 2024년 6023억원, 2025년 67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불과 9개월 만에 대부분을 상쇄했다. 누적 영업손실은 종전 최대 연간 적자를 기록했던 2021년의 1조7088억원도 넘어섰다.

당기순손실 역시 크게 불어났다. 3분기 순손실은 7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올해 누적 순손실은 1조9608억원으로 최근 3년간 거둔 당기순이익 합계 1조40억원의 약 1.95배에 달했다.

쿠팡은 수익성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은 이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프로덕트 커머스의 수익성이 내년 중반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장은 "프로덕트 커머스는 내년 중반 회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순항 중이며 본질적인 고객 행동 패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했다.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는 공급망 차질과 고정비 부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탈한 고객을 되찾기 위한 마케팅 투자 확대를 꼽았다. 고객과 주문량이 회복되면 물류시설 가동률이 높아지고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이 요인들 중 어느 것도 구조적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와우 멤버십 회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복귀 회원의 소비도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국내에서 쿠팡이츠를 통한 비식품 즉시배송을 확대하고, 대만에서는 새벽배송과 물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랍 아난드 쿠팡In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4분기 연결 매출이 고정환율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14% 증가하고, 조정 에비타 이익률은 3분기보다 0.5~1.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서울·수도권·지방 주요단지 신고가 행진

대통령 하락 발언에도 시장흐름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지방 곳곳에서는 종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과 수도권, 지방 주요 단지에서 종전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잇따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전용 약 129㎡는 지난달 6일 3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를 4억8000만원 경신했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 전용 약 142㎡도 지난달 26일 44억5000만원에 손바뀜해 기존 최고가보다 1억5000만원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 약 109㎡는 지난달 15일 26억7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보다 1억7000만원 올랐다.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도 지난달 3일 35억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를 1억원 넘어섰다.

경기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더샵아이파크' 전용 142㎡는 지난달 17억85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의 직전 최고 거래가격인 16억15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전용 84.99㎡ 분양권도 지난달 31일 16억292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격보다 3억7410만원 올랐다.

세종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나성동 '나릿재마을6단지'는 지난달 31일 11억5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보다 5500만원 올랐다. 같은 나성동 '나릿재마을1단지'는 지난달 29일 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7750만원 높였다.

지방에서도 최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랐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롯데1단지' 전용 약 73㎡는 지난달 19일 7억9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보다 6500만원 올랐고, 진주시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중흥에스-클래스센트럴시티' 전용 약 109㎡는 지난달 15일 7억2000만원에 손바뀜해 기존 최고가를 3800만원 경신했다.

/이현진 기자 lhj@

〉〉 1면 '민주당 4년만에 상·하원'서 계속

'생활비·부패' 표심 좌우
트럼프 "민주당과 협력"

"이란 전쟁이 패배에 일부 영향"

캔자스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승리한 것은 1932년 이후 처음이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을 파고들었다. 공화당이 보유한 아이오와주 하원 4석 가운데 3석을 가져왔다.

인디애나주 5선거구에선 민주당 J.D. 포드 후보가 공화당 현역 빅토리아 스파츠 의원을 꺾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약 17%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다.

이번 선거에서 조지아주의 케이샤 랜스 보팀스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로, 뉴햄프셔주의 크리스 파파스는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미국 최초의 남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미네소타주의 페기 플래너건은 미국 최초의 원주민 여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AP 유권자 조사에서는 응답자 약 절반이 생활비와 정부 부패 문제를 각각 의회 선거에서 표를 결정한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이 패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예산 심사와 행정부 감독을 주도하고, 상원에서 각료와 연방 판사 등 대통령 지명자의 인준을 좌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예산과 주요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원과 협상해야 한다.

/김주형 기자 gh471@